

멕시코혁명과 농민의 역할

강 명 구
(서강대 강사, 정치학박사)

I. 농민혁명이론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농민혁명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은 농민의 행태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제안했다. 강조하는 부분이나 자세한 설명에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이론들은 농민의 전통적인 생계보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온 자본주의의 도래와 국가건설의 충격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들 이론에 의하면 유례없던 정부와 시장의 요구는 전통적인 후원-수혜자(patron-client)간의 유대 및 촌락공동체의 분배 메카니즘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바 이런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표류하게 된 농민들은 前자본주의적인 전통적 안정을 되찾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Barrington Moore, Eric Wolf, Jefferey Paige, James Scott, 그리고 Joel Migdal 등의 연구는 대략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Samuel Popkin이 “도덕경제학적 접근법”(moral economy approach)이라고 부르는 上記한 이론들은 대략 두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Moore, Wolf, Paige 등으로 대표되는 첫번째의 강력한 분석법주는 농촌봉기를 주로 계급동맹과 계급갈등의 함수로 분석하는 구조주의 접근법이고, 두번째 접근법은 객관적인 사회구조보다는 농민반란에 있어서 농민의 동기나 주관적인 의식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James Scott의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가 이 접근법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농민혁명에 대한 위의 두가지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Samuel Popkin의 연구 *The Rational Peasant*를 대표로 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political economy approach)은 또다른 강력한 접근법이다. 팝킨도 역시 농민사회에 미친 자본주의적 침투와 중앙집권적 국가건설의 충격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설명은 앞의 두가지 접근법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세가지 접근법(구조주의 분석, 도덕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서로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 본 논문의 목적은 농

민혁명에 대한 이상 세가지의 접근법을 이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멕시코를 사례로 하여 이 접근법들을 적용해 보는 데 있다.

1) 울프(E. Wolf)의 구조주의적 분석(1969)

울프는 농민의 사회생활에 미친 상업적 농업의 충격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전, 즉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혁명을 통해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변형시켰다. 그러나 울프와 무어는 오늘날 저발전국가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 근대화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데 동의한다. 대신 울프는 Moore가 이야기하는 (Moore, 1966, 제 7 장) 제 3의 경로, 즉 금세기 들어 식민 또는 반식민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대변혁(Societal Overhaul) 방법이었던 농민혁명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前산업사회에서 식민지적 자원생산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가장 주된 희생자는 농민이었다. 농촌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은 시장관계의 유입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농민이 플랜테이션과 여타의 대규모 기업적 농업에 희생되어 토지로부터 유리되어, 농민 자신은 오지의 척박한 토지에서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들은 직·간접적 강제에 의해 플랜테이션, 광산, 도로 및 철도 건설장의 미숙련 노동자로 내몰렸으며, 심지어는 전통적 부락 공동체내에서 여전히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목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조차도 현금지불 이외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허용치 않는 시장가치에 의해 침식되었다. 따라서 울프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의 확산 그 자체가 농민들로 하여금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즉 농민들은 파괴되어 가는 전통적 제도에 더욱 매달리거나 또는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형태를 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다.”(Wolf, 1969, 282).

결과적으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농민반란과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통적인 제도가 농민들의 위험은 더이상 바람막아 주지 못할 때인 동시에 또한 대안적 제도들도 너무 혼란스럽거나 제한적이어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바로 그 시기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Wolf 뿐아니라 여러 학자가 자본주의가 前산업사회 또는 半산업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논하는 과정에서 근대혁명의 기원을 찾았고 또한 농민을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차라리 그의 주요한 공헌은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주장에 있다. 즉 “농민봉기에서 중추적 집단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권력권(power domain)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중농 및 빈농이다. 따라서

이들 농민에게 부여된 전술적 유동성(tactical mobility)에 플러스적 요소로 작용하는 모든 因子는 농민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증가시킨다.”(Wolf, 1969, 292-3).

6개국의 혁명이전의 상황에 대한 Wolf의 분석은 효과적인 정치, 경제적 통제와 외곽에 위치한 주변지역 농민들(멕시코의 모렐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불가르의 호난과 센시, 베트남의 네안, 알제리의 카빌리아, 그리고 쿠바의 오리엔테 지방의 농민들)에 의해 수행된 촉매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주변지역의 대중들은 중농의 전술적 유동성(tactical mobility of the middle peasants)을 구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주나 지주 또는 시장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것이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농민이 그의 연구의 초점이기는 하였지만, Wolf는 그들의 역할을 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혁명을 낳는 것은 농민봉기와 다른 광범위한 정치운동의 혼합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계급들의 중추적 역할, 혁명 후 새로운 질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非농민인 혁명 지도부의 유형, 그리고 농민의 행위와 의식의 한계 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비농민계급(extra-peasant class)의 역할은 근대농민혁명의 역설적 성격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Wolf에 의하면 근대농민혁명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매우 지엽적(parochial)인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광범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즉 前산업사회에 지역적, 부분적 충격만을 가하는 것으로 출발한 농민혁명은 결과적으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근대사회 전반에 충격파를 던지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지역적 정의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에 이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통을 유지하려는 농민의 의도가 그를 혁명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이다. 요컨대 가혹한 현재상태를 되돌리려는 그의 노력은 광막하고 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초대할 뿐이다.”(Wolf, 1969, 301).

농민반란의 최초의 지도자는 도시와 국가를 변형시킬 목적은 없었다. “외부의 지도없이 농민은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믿어온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은 벗어나지 않는다.”(Wolf, 1969, 294)라고 Wolf는 말하고 있다. 저발전국가에서 민족부르주아지는 너무 취약하고, 해외로부터의 후원자에 너무 의존적이고, 지주와 긴밀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력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반대로 부르주아지는 그 혁명적 지도력의 역할에 있어서 軍이나 黨으로 구성된 “총을 든 지식계급”에 지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Wolf, 1969, 296).

요컨대 농민은 그들이 완성시킬 수 없는 혁명에 착수하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사파타와 판초 비야(Zapata and Villa)는 오브레곤과 카르데나스에 앞서 역사의 무대

에서 퇴장했으며, 알제리와 쿠바에서 혁명 후 재건작업은 군에 의해 통제되었고, 러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이 통제권을 장악했다. 한마디로 Wolf는 토지없는 빈농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공산주의적 신화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으며, 동시에 단순히 “민족주의적 호소”(nationalist appeal)와 같은 모호한 관념의 견지에서 농민의 혁명적 동원을 설명하려는 이론의 부적합성을 보여주었다.

2) 도덕경제학적 분석(moral economy approach)

Wolf와 같은 농민혁명에 대한 구조주의적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James Scott은 농민반란에 있어서 농민의 동기와 주관적인 심리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기실 Scott은 구조주의자에 충분히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접근법이 농민혁명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구조주의와는 대조적으로 Scott의 “도덕경제학적” 설명은 언제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이 그들을 분노케 했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무엇이 폭발적인 상황을 낳게 되는가”하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Scott, 1976, 4). 요컨대 그의 의도는 농민의 도덕감정 구조 깊숙히 파고들어, 농민자신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데 있는 것이다.

농민의 생활상을 만성적으로 빈곤하고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하는 데서 시작한 Scott은 농민윤리의 초석으로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를 가정한다. 생계윤리는 최저생계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합리적 원칙이다. Scott에 따르면 농민은 이윤을 극대화 하려기보다는 최저생존수입이하로 그들의 생활이 떨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 매진하는 존재다.

이러한 ‘안전제일원칙’(safety-first principle)은 농민이 선호하는 지대 및 조세 체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농민들은 일정한 생계수준의 유지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가 하는 것으로 조세와 지대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요컨대 농민들은 흉작을 극복하여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는, 그러한 안전조치를 갖지 못한 제도보다 덜 착취적인 것으로 본다(비록 후자가 전자보다 평균상 훨씬 낮은 양을 징세해 간다 하더라도)(Scott, 1976, 35-55).

Scott에 따르면, 前자본주의적 촌락생활의 많은 제도들이 바로 이러한 농민의 정의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촌락민간의 사회적 재분배제도와 지주-소작농간의 후원-수혜자 상호의무 같은 것은 모든 농민가정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 메카니즘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의 중대한 역사적 발전—서구 자본주의의 팽창과 근대국가의 등장—은 기존의 사회안전보장방법을 파괴하는 데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농민의 정의규범을 훼손시켜 단호한 저항을 초래했다. 이러한 태도와 가치는 역경의 시기에 닥쳐올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Scott의 논지를 따르면, 농민혁명은 상승하는 기대가 예기치 않게 좌절 되었을 때가 아니라 기아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실질소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취약성, 많은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지대의 돌발적인 증대, 그리고 다른 경제적 기회의 결핍 등은, 그들의 생계 및 상호부조윤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농민들 사이에 도덕적 분노감을 불러 일으킨다. 벼마의 사야산(Saya San) 반란과 중앙베트남의 네딘(Nghethin)반란,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나타났던 운동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국가의 침투와 세계시장의 출현에 의해 그들의 전통적 규범이 훼손된 농민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논증해 주고 있다.

이 접근법의 강점은, 노동집약적 또는 매우 낮은 한계수익적 경향,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기피, 그리고 빈농이 부가토지에 대해서 기꺼이 과도한 지대를 지불하는 현상과 같이 의견상 농민사회의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Scott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패턴은 어떤 특수한 농민의 정신상태의 산물이 아니라, 대안적인 생산출구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cott의 접근법은, 농민의 독특한 퍼스낼리티를 묘사하는 경향에 대한 해독제라 할 수 있다.

Scott의 접근법의 또다른 매력은 그것의 규범적 측면에 있다. 이 규범적 측면에는 두가지 논의가 관련되어 있다. 첫번째 논의는 강제의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농민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논의는 농민과 시장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Bates, 1978, 143).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은, 생계경제로부터 시장교환에 기초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윤리적 동의를 받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Scott은 그 성격상 공리주의자인 Rawls와 가까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cott에 의하면 새로운 경제질서가 농민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질서에서의 최소수혜자가 과거 그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던 사회에서보다 잘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결코 그러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의 윤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Bates, 1978, 144).

그러나 특별히 미시적이고 주관적 차원의 시각에서 농민혁명의 분석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cott의 분석은 몇 가지 심각한 제한이 있다. 과연 농촌반란의 분출을 지주와 국가에 의한 생계보장의 침해에 대한 농민분노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근대시장 또는 근대국가의 도래이전에 발생한 前 자본주의 농민혁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호부조와 생계윤리의 관념이 지배

했던 세계로서 전통사회를 묘사하는 것은 지주-소작관계에 내재한 모순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재분배메카니즘 또는 후원-수혜자 관계가 그러한 긴장을 완화함에 있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분명하지가 않다. 농민은 그들이 자신을 不正義의 희생자로 보기 때문에서 뿐만 아니라,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회구하기 때문에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Scott의 또다른 한계는 농민의 상황을 부적절하게 동질화시키는 경향에도 있다. 예컨대, 농민이 앞다투어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예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단순히 생계권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하는 농민혁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록 Scott이 그의 논지는 단지 “매우 낮은 수입, 적은 토지, 대가족, 변동폭이 큰 수확, 그리고 미미한 농업의 소득기회를 특징으로 하는” 농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더라도(Scott, 1976, 25), 그의 농민성격에 대한 묘사는 많은 중요한 차이점들을 모호하게 한다. 기실 최근의 농촌사회연구의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는 구조적·생태학적 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소작농, 자유농, 빈농, 중농 그리고 부농들은 그들의 농경전략과 혁명에의 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농민은 왜 좌절하는가?” 뿐만 아니라, “농민은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치과학도에게 Scott의 접근법은 다소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그가 접근법을 혁명에 대한 “좌절—공격가설”(frustration—aggression)이나, “상대적 박탈감 가설”(relative deprivation)과 명백히 분리시키고 있다고 해도 Scott은 다른 접근법과 유사하게 정치적 맥락을 다소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의 분석에는 농민혁명에서의 조직적, 동원적 측면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다. 요컨대 Scott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정한 농민의 동기형성의 이해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누가, 언제, 무엇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구조주의적 설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S. Popkin은 그가 “도덕경제학”(moral economy)이라고 명명하는 기존의 모델에 반대하여, 이른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에 기초한 농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한다. Wolf의 연구와 같은 초기저작들도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명제들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Wolf의 경우 농민공동체의 특이성과 역사적 발전 및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Popkin류의 정교한 이론적 구축에는 큰 기여를 못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당연한 귀결로서 농민혁명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은 네오마르크스주의 그것도, 농민에게 닥쳐 왔던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대한 단순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자기개선에 대한 개인적 욕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19세기 신고전학파의 사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경제학이론은 촌락생활의 “전통문화”의 희생자보다는 이기적인 합리적 행위자를 강조한다. 논리적 외연상, 이 접근법은 개인의 선택과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미시경제이론을 차용하며,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공공선택이론과 조직이론을 빌려오고 있다(Colburn, 1982, 439).

농민사회에 대한 도덕경제적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Popkin은 농민의 상업농업에의 참여는 감소하는 수입과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에 대한 능동적 반응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또한 Popkin은 농민해방운동은 反봉건적이며, 노동과 상품 양자의 교환조건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선하고 전통적 관계를 재형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농업의 상업화와 강력한 중앙국가의 발전이 극적으로 농민사회를 변화시킨 했지만, 그것들은 농민에게 전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제도는 도덕경제학자들이 가정한 것보다 더욱 가혹했으며, 보다 불평등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Scott은 도덕경제학 접근법이 가정한 것 이상으로는 상업적 농업과 국가가 농민에 자애롭다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과 국가의 침투가 하층농민계급의 복지를, 집단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기회의 도입에 의해서 뿐 아니라 전통적 제도의 명예를 깨뜨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Scott이 촌락의 유대, 상호부조 그리고 공동체적 평등주의를 본 반면, Popkin은 분해, 자기추구, 불평등을 발견했고, Scott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가치의 특수성(particularity)을 강조한 데 반해, Popkin은 의도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적 심리(universal economic mentality)를 나타내는 개인적 투자전략논리(investment logic of individual strategies)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이 집단행동 또는 반란에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Popkin이 “투자논리”(investment logic)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민은 자기와 가족의 복지와 안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Popkin, 1979, 31). 결과적으로, “농민이 집단행동에 기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는 집단이득이 아니라 개인이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개인은 집단행동의 개인적 참여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이 되기를 기대한다.”

(Popkin, 1979, 251-2). 요컨대 Popkin에게 있어서 농민반란은, 개별농민이 기대되는 보상과 자신의 투입에 대한 비용—편익계산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기회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취하게 되는 적극적인 노력인 것이다(259).

Popkin 분석의 가장 큰 공헌은 前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후원—수혜자 모델의 낭만적 요소에 도전한 데 있다. 기실 Popkin이 상정한 불안전하고 불평등하며, 박탈이 존재하는 흡수적 촌락 세계는 낭만적인 후원—수혜자 모델에 대한 해독제인 것이다. 또한 Popkin이 옳게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반란은 종종 전통세계의 회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전의 관례를 독단적이고 까다로우며 고통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격한다(247). 요컨대 Popkin의 농민혁명에 대한 분석은 후원—수혜자 모델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적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정치행태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려는 Popkin 자신의 노력은 그리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다. Popkin이 영감을 얻은 개인적 결정에 대한 경제이론은 시장투자를 예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의 모델이 사회혁명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기실 베트남 농민을 다루면서 Popkin은 농민들이 종종 집단이나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듯하다고 본다. Popkin이 결론을 내렸듯이, “농업노동자는 소작농보다 조직되기 어렵고, 반항하는 경향이 적으며, 소작농은 토지를 소유한 중농보다는 훨씬 더 비활동적이라는 사실이 베트남의 경험에서 확증되었다.”(250). 이러한 발견은 도식적이고 결정론적인 계급분석의 약점을 노정시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농민행태는 계급위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준다.

Popkin의 분석은 또한 농민사회에 자기이익추구 이상의 도덕적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 농민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른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할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Popkin의 중심논지는, “베트남의 대중동원의 경우, 동원된 농민들 중의 일부는 미래의 선택적 보상에 대한 기대에 고무되어서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내면화된 의무감이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의 결론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Popkin이, 정의기준과 생계위기 구성요인의 변화에 대한 도덕경제학적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의 분석적 약점은 농민이 그들의 문화적·윤리적 규범과 관계없이 너무 합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Popkin은 개인적 생존과 번영이 농민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말한다. 멕시코의 모델로스(Morelos) 농민의 사례에서 보게 되지만, 정의로운 것과 인간적인 것에 대한 공통의 기준에서 비롯된 분노, 적개심, 증오 등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농민혁명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

다. 그러나 Popkin은 농민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의 이론에서 그러한 도덕적인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II. 멕시코혁명의 농민적 측면 : 史的 事實

멕시코혁명은, 그 참여자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혁명을 통해 남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농업관계 법률을 확보했기 때문에 농민혁명이라고 주장된다. Carranza 정부에 의해 초안된 1915년 농업법과 1917년의 헌법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듯하다. 이러한 입법들은 무엇보다도 촌락공동체에 대한 토지의 증여, 증여된 토지의 대부분의 무토지 농민에게로의 재분배, 그리고 외국인 소유 토지의 징발 등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¹⁾

그러나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두가지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Goldfrank, 1979, 157-8). 첫째는, 멕시코의 농촌반란은 전국적 범위의 대단위 사건도, 지주 또는 봉건적 형태의 잉여추출에 저항한 일반적인 봉기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나 프랑스혁명에서처럼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강화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인 토지개혁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혁명은 농민계급이 얻어진 여타의 사회혁명과 매우 달랐다. 1910년과 1920년 사이에 혁명이전의 군과 국가행정부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어떤 실질적인 농촌개혁도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동기간에 169,936헥타르의 토지가 46,398명의 농민에게 분배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로드리게스(Rodriguez) 대통령으로부터 카르데나스(Cardenas)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811,157명의 농민이 17,906,429헥타르의 토지를 획득했다(Wilkie, 1967, 188).

멕시코혁명의 두번째 독특한 특징은 농촌반란의 이질성이다. 문화적, 지역적 차이와 전국적 수준의 중재기관의 부재로 인해 농촌의 노동자들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응집력 있는 노력을 경주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산당과 같은 단일정당이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 정치권력을 획득하려고 투쟁하지도 않았다, 탄넨바움(Tannenbaum)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조직 정당도 애초에 국면을 주도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대한 지식인도 그 정당의 강령을 제시하지도, 당노선을 정립하지도, 당의 목적을 개관해 놓지도 않았다.”(Tannenbaum, 1937, 115-6). 그것은 돌발

1) 멕시코혁명의 농업적 측면은 Frank Tannenbaum의 저작,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New York, 1929)에서 잘 기술되고 있다.

적으로, 동시에 수많은 방향으로 움직였다.²⁾

앞부분에서 언급된 이론들과 관련하여 멕시코혁명의 특징(특히 농업적 측면에서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아스(Díaz)시대(1876~1910)의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멕시코혁명이전 멕시코 일부지방의 농민 노동조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시기의 노동조건에 대한 검토는 “농민은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혁명기간 동안 멕시코의 일부지방에서 행해진 농민동원 측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데, 이는 “누가 봉기에 참여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시대의 일반적 배경

분석을 위해, 1910년의 혁명을 초래한 포르피리오(Porfirio) 정권의 두가지 주요 특징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특히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발전의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디아스(Díaz) 독재정권에 의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중앙집권이다.

이 시기에 멕시코에서의 사회적 변화는 세계적 경제성장과 멕시코 자유주의의 승리라는 동시적 현상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³⁾ 디아스시대의 멕시코는 동시대의 대부분의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자와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기초한 역동적인 수출주도적 성장국면을 경험했다. 요컨대 원자재생산 산업의 팽창이 근대화의 열쇠였던 것이다.

1876년에서 1885년 사이에는 주로 해외자본에 의해 광대한 철도체계가 건설되었는데, 이러한 철도는 생산자로서 지역시장의 제한을 벗어나 전국적, 심지어는 세계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 생산자들은 더욱 많은 토지와 노동자원을 필요로 했는데, 그러한 자원은 촌락민들에 의해서 반

2) 멕시코혁명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James D. Cockcroft의 *Intellectual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68)과 John Hart의 “19th century urban labor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The Americas*, XXX (Jan, 1974), 297-318과 “Agrarian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an ideology,” *The Americas*, XXIX (Oct., 1972), 131-150을 보라.

3) 멕시코 자유주의와 Porfirian Mexico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William D. Raat의 훌륭한 논문인, “Ideas and Society in Don Porfirio's Mexico,” *The Americas*, XXX(July, 1973), 32-53을 참조하라.

4) 철도건설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John H. Coatsworth의 *Growth Against Development: The Economic Impact of Railroads in Porfirio Mexico*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 Press, 1981), 특히 5장과 6장을 보라.

경제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었다. 토지가 마을공동소유에서 대토지소유자(hacendado)에게로, 소농으로부터 지방의 실력자들("caciques")⁵⁾에게로 넘어가면서 전통적인 주곡 대신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옥수수, 콩, 고추 대신 목화, 설탕, 커피, henequen과 열대과일이 재배되었다. 이런 결과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으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윤동기에 무관심했던 토지소유자들조차도 최소한 1907년까지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다(Knight, 1980, 18). 그래서 Womack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모렐로스에서 농장주들은 "(농민들은) 농사를 화분에나 짓게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이다(Womack Jr., 1968, 37).

이시기의 경제발전 유형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정치적 중앙집권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갈등이다. 이는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한 세기 동안이나 계속된 멕시코 사회의 원심력에 대한 투쟁이었다. 철도 체계의 팽창은 신속하고 용이하게 지방적 원심력을 격파해나갔으며, 1910년까지 비록 중앙집권화의 과정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포르피리오의 공문서는 총독시절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Wolf가 말한 것처럼, "전국적 범위의 수혜체계(a nation-wide System of Patronage)는 권력을 상층부의 독재자 수중에 집중시키는 정치적 메카니즘을 확보해 주었다." (Wolf, 1969, 15). 이러한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결과로 조세징수가 강화되었고 엄격한 "공공질서"의 수립이 강제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중앙집권화는 농촌의 착취와 토지집중의 필수적 선결조건이 되어버렸다(Knight, 1980, 19).

上記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경제·정치적 배경 위에 우리는 포르피리오시대 동안 몇개 층의 계급을 범주화 할 수 있다.⁶⁾ 1885년에서 1900년 사이에 멕시코를 각 부문별로 상층, 중간 그리고 대중계급이 존재하는 농촌부분과 도시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인구 약 1,350만 중에 거의 91%가 대중계급으로, 8%는 중간계급으로 그리고 1%는 상층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층계급은 농장주, 플랜테이션 소유자, 투자가, 산업가 그리고 교회와 군대의 고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간계급은 기타 전문직업인과 경영인 집단, 정치가 및 관료, 장인, 무역상, 숙련노동자, 목장주, 자

5) "Cacique"는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가족주의적이며 중층은 독단적인 그의 통치가 혈족, 전투원, 피부양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지방 및 지역 정치의 강력한 지도자인 지방보스로 개념화될 수 있다. 그것의 기원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Gilbert, M. Joseph의 "The fragile revolution: Cacique Politics and revolutionary politics in Yucata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15, No. 1, 1980, 39-64를 보라.

6) 여기에서 "계급"의 개념은 경제적 기능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한 단위로 간주되는 하나의 집단 또는 사람의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영농으로 구성되었고, 대중계급은 병사, 산업노동자, 상인, 날품팔이꾼, 소작인 그리고 기타 도시 및 농촌의 실업빈민 등을 포괄한다(Raat, 1973, 33).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의 독특한 이유 때문에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멕시코혁명은 프랑스의 그것과 대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농촌의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 있어 산업노동자는 혁명의 선봉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후미에 서지도 못했다. Anderson이 아주 명확하게 분석했듯이 정치적 전선에서 산업노동자는 중간계급의 지도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무정부적 생디칼리스트나 마고니스타(Magonista) 이념보다는 자유주의적 마테리스타(Maderista)를 더 선호했다. 혁명당시에는 물론이고 혁명이전에조차 조직노동자의 국가에 대한 수혜자적 의존(clientilist dependence)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Anderson, 1974, 94-113). 도시빈민의 경우 또한 모호했다. 도시빈민들은 종종 그리고 극적으로 자기존재를 과시했지만, 전산업시대의 유럽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지향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이들 멕시코의 도시빈민들은 가끔은 인기없는 지방정부를 축출하고 도시에서 중국인들을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⁷⁾ (Cumberland, 1960, 191-211) 그들의 폭력은 수단적이기보다는 감정 표현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스페인의 전당포와 식료품 상점을 약탈하는 데 제한되었었다(Knight, 1980, 21).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두번째 이유는 혁명으로 인한 부담(즉 오랜 전투, 게릴라전, 처음에는 디아스를 그다음엔 우에르타(Huerta)를 붕괴시켰던 맹렬한 전투와 같은 것)를 농촌집단이 짊어졌다는 데 있다. 그러나 농촌집단의 개념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집단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질성”이란 개념일 것이다. 혁명이전에 멕시코 농민계급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째가 자유촌락민이고, 둘째는 변경의 부족공동체이며, 셋째는 농장(hacienda)거주자이고, 넷째는 소규모 자영토지소유자(rancheros)였다(Katz, 1976, 62-6).

자유촌락은 아즈텍시대, 스페인 식민지시대, 그리고 멕시코독립초기에까지 걸쳐 광범위한 공동토지를 보유해 왔었다. 1870년대까지 이들 공동체 대부분은 그들의 기본생계를 마을토지에서 챙겼다. 비록 필요한 것이긴 했지만 농장에서 얻는 노동수입은 보충수입이었다. Porfirio Díaz의 독재가 등장하여 마을공유지에 대한 대규모 정발이 행해지면서 이런 경향은 역전되었다. 1910년에는 전체 멕시코 농민의 80~90%가 실제로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농장노동을 통한 수입은 그들 수입

7) 이는 북부의 소노라(Sonora) 주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상세한 것은 Charles Cumberland, “The Sonoran Chinese and the Mexican Revolution,” *The Americas*(May, 1960), 191-211을 보라.

의 주요한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촌락과 농장 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옥수와 밀 생산지역에서 많은 촌락민들은 농장토지의 소작자로서 노동했으며, 설탕, 커피, 담배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에서는 단지 파종과 추수기에만 임시노동자로 고용될 뿐이었다.

부족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멕시코변경의 산물이었다. 17, 18C에 종교단(주로 예수회와 프란체스코회)들이 그러한 부족내에 포교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선교회의 정치, 경제, 종교적 지배를 수락하는 대신에 북부의 부족공동체는 그들의 토지 모두를 보유하도록 허락받았다. 이것은 선교회와 긴밀히 동맹한 대단위 인디안 귀족계급이 존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 후에 멕시코정부는 이들 부족집단의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세번째 농민집단은 농장(hacienda) 거주자인데, 때때로 이들은 *gañanes* 또는 *peones acasillados*라고 불렸으며 주로 소작자, 예비노동자 그리고 목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채무노동(*debt peonage*)과 같은 강제수단에 의해서 농장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는 노동력이 부족한 남부에서 가장 발전했으며, 미국의 목장들과, 미국 및 멕시코의 광산들이 그들 농장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던 북부멕시코에서는 가장 취약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 농장거주노동자들은 수동적인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은 오히려 혁명기간 동안 농장주를 위해 싸우기도 했다.

소토지 자영농들(*rancheros*)은 여러 면에서 멕시코에서 가장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북쪽의 유목인인디안들(특히 미국의 아파치족)로부터 변방을 지키는 댓가로 처음에는 스페인 국민정부로부터 나중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토지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인디안과의 전쟁기간중 이들 소토지 자영농들은 치후아후아(*Chihuahua*) 지방의 테라스스(*Terrazas*) 가문과 같은 부유한 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1885년경 인디안부족이 전쟁에서 패한 뒤로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소토지 자영농들의 토지가 치후아후아의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이 되었던 것이다. 멕시코의 中部철도와 치후아후아의 태평양철도 노선이 건설됨에 따라, 이 철도 건설지역의 부지는 地價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 이래로 이 지역의 대토지 소유자는 (처음에는 정부의 묵시적 동의 아래, 나중에는 정부의 적극적 후원 아래) 소토지 자영농의 땅을 빼앗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⁸⁾

8) 이 기간 동안 치후아후아(*Chihuahua*)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Ian Jacobs의

2)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시대의 농민의 노동조건

디아스시대 동안 농민의 노동조건을 상술하기 전에, 디아스시대 이전의 농촌상황을 살펴보면 이 논문의 목적상 매우 유익할 것이다. 즉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 있어 자본제적 상업농업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다.

18세기와 19세기 초반 동안 멕시코에 있어 노동조건은 두가지 커다란 양태를 띄어 왔다. 즉 북부와 남부가 첫번째이고 中部멕시코가 또다른 형태다. 멕시코 대농장에 있어 농민의 노동조건을 연구한 Katz의 선구적 저작에 의하면 中部 멕시코의 고원지대에 있어 자본제적 농업이 도입되기 전인 19세기 중반까지는 농촌부채나 이에 따른 부채노예는 생각보다 훨씬 미미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시대 후기 때에는 부채노예는 전체 농촌 노동인구의(대토지 농장에 속한) 반도 채 안되었고 이들 부채노예에 대부분은 3~4주의 노동으로 충당될 정도의 빚만 지고 있었다(Katz, 1974, 6-7). 그러나 부채노예의 문제는 북부에 있어 보다 심각하였다.

예를 들면 코아우일라(Coahuila)에 있는 산체스 나바로라는 대토지 농장의 경우 모든 노동자들이 빚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대토지 농장주들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경찰체제를 수립하고 있었다. 남부멕시코에 있어 우리는 유카탄반도의 경우에서 잘 볼수 있듯이 강력한 강제노동제가 팽배해 있었다. 대부분의 대농장 농촌노동자는 영구적인 거주노예노동자였다. 한조각의 땅을 부치는 댓가로 혹은 대농장이 통제하는 농업용수를 빌미로 노예노동자들은 아무 댓가없이 매주 월요일 대농장에서 지주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은 빚으로 대농장주에게 매여 있었다. 멕시코 독립기간중 노예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가 한 때 있었지만 1843년 유카탄반도에 포고된 법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노예노동을 강제키 위한 제도는 강화되었다. 이법은 부채를 갚지 않고 대농장을 탈출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하였고, 지방관리들은 탈출 노예노동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받았다(Katz, 1974, 8).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대체로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인구밀도에 있어서의 차이다. 北部 멕시코에 있어, 인구밀도가 희박한 관계로 노동력 충당을 위해서 대토지 소유자는 이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둘째는 자유 농업노동자의 존재유무에 있다. 유카탄반도와 오아하카지방에 있어서, 인구밀도는

Ranchero Revolt: The Mexican Revolution in Guerrero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2)와 Mark Wasserman의 "The Social Origins of the 1910 Revolution in Chihuahu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XV, No. 1, 1980, 15-37을 보라.

북부보다 훨씬 높았다. 이 지역에 있어 문제는 노동인구의 절대부족이 아니라 자유 노동인구의 부족에 있었다. 아마도 토지소유 인디안촌이 중부고원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유카탄 및 오아하카 지방에 많았던 것이 자유노동인구의 희소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Waterbury가 지적하듯, 오아하카의 경우 스페인의 점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조합적 공동체와 인디안의 귀족계급제도가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Waterbury, 1975, 418). 유카탄반도의 경우도 잘 발달된 인디안 촌락 때문에 자유노동인구가 희소했다고 볼 수 있다.

포르피리오 디아스시대에 들면서 농촌의 여건은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북부 멕시코에 있어서의 농촌변화는 대목장의 증가, 투기, 그리고 상업적 홈스테드(homestead) 등 미국의 남서부와 유사하였다. 인구가 조밀한 중부의 경우, 몇몇 대농장은 농업기술을 근대화시키고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맛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마을농장에서 토지와 노동을 좀 더 집약적으로 이용해왔다. 남부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특수열대작물을 인클레이브(enclave)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계속하여 자본제적 농업이 침투한 이후 즉 포르피리오 디아스 이후의 농촌노동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남부 : 유카탄(Yucatán), 타바스코(Tabasco), 치아파스(Chiapas) 및 오아하카(Oaxaca), 베라크루스(Veracruz) 등의 州를 포함하는 남부 멕시코의 노동상황은 거의 노예적 상태였다(Turner, 1969). 처음에 농업노동력은 적법하게 또는 불법으로 땅을 빼앗긴 마야족의 마을로부터 충원되었다. 이는 특히 유카탄반도의 경우 극심하였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인디안 노동자들은 점점 더 멀리 이주해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 개인소유의 청원경찰제에 의존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이용하여 부채 노예제도나 순수 노예노동의 형태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 농장주들은 또한 카리브 연안의 州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해 쓰거나 또는 중국과 한국 등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도 했다(Katz, 1974, 15).

또다른 노동력의 수입원은 소노라(Sonora) 지방의 야키(Yaqui) 인디안을 돈으로 사거나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충원하는 것이었다. 소노라(Sonora) 지방에서 땅을 빼앗기기를 강력히 거부하다 잡혀온 Yaqui인디안이나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독재에 대한 강렬한 저항으로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힌 사람들이(주로 北部 멕시코로부터) 유카탄반도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졌다. 이런 부류의 강제로 끌려온 노동자 중에는 범죄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Katz, 1974, 16).

전 멕시코에 걸쳐 남부 에네켄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환경은 악명높았다. 심지어

어는 플랜테이션과는 좀 무관한 자유노동자나, 소규모 상인계급, 그리고 도제업자들에게조차도 피해는 컸다. 즉 에네켄(henequen: 용설란의 일종으로 주정을 만드는 데 쓰임) 붐이 일자 전통적 식량이었던 옥수수 재배와 가축사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심지어는 기본적인 주식마저도 수입해야 될 형편이 되었다(Goldfrank, 1976, 401-2). 요약하여 말하자면, 자본제적 농업이 소개된 이후 남부 멕시코의 노동조건은 점차적으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즉 부채노예의 상태에서 거의 완벽한 노예상태로 전환되게 되었다. 자본제적 상업생산의 증대와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출현 바로 이 두 요소가 노동조건 악화의 기본적 요인이었다.⁹⁾ 전통적 유형의 부채노예제가 새로운 경제체제에 걸맞지 않게 되자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했다. 새로운 체제의 최상단에는 군인과 지방의 사적(私的) 강제조직인 *rurales*¹⁰⁾가 위치해 있었고, 최하단에는 다수의 주정부나 지방정부 관료,私고용인, 그리고 대농장의 청원경찰이 새로운 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위치해 있었다.

中部 멕시코: 中部 대농장에 있어 노동조건은 열대남부지역과는 판이하였다. 남부 멕시코가 수출용으로 환금작물에 주력하였다면, 中部지역은 주로 국내시장을 위주로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남부에서 노동력 기근현상이 있었다면 中部에서는 노동과잉현상이 지배적이었다. 中部는 항상 인구가 조밀했으며 포르피리오 시절 많은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무토지 농민을 창출해 놓았다. 두가지 종류의 대단위 농장이 지배적이었다. 첫째, 대부분의 대농장에서는 옥수수, 밀 및 여러 주식을 생산했다. 모델로스의 사탕수수농장을 비롯하여, 둘째 형태는 고원지대의 남부에서 열대작물을 생산하였다(Katz, 1974, 24).

한편으로는 잉여노동력 때문에, 또다른 한편으로는 옥수수 및 밀에 대한 국가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하여, 中部의 대농장들은 소작농들을 교묘히 착취하는 수법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¹¹⁾ 대부분의 中部에서는 전통적 대토지농장이 토지를 덜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노동을 극도로 착취하는 생산방식을 취하여 왔다. 포

9) 상업농업이 부채했던 오아하카(Oaxaca) 남부를 제외하고, 오아하카주의 일반적 노동 조건은 오아하카의 바예 나시오날(Valle Nacional)의 그것과 달랐다. 상세한 것은 "Non-revolutionary Peasants: Oaxaca compared to Morelos in the Mexican Revolu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7, Oct., 1975, 410-42를 보라.

10) 상세한 것은 Paul J. Vanderwood, "Mexico's Rurales: Reputation Versus Reality," *The Americas* (July, 1977), 102-12를 참고.

11) 2가지 형태의 메카니즘은 *medios al rajar*와 *medios al quinto*이다. 앞의 방법은 자신의 농기구와 가축을 제공하고 수확의 50%를 받으며, 후자는 농장으로부터 농기계와 가축을 빌렸으며 수확량의 50%를 바치고 이 경우 나머지 추수의 1/5을 농기계와 가축사용료로 따로 지불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농민이 후자와 같은 소작형태로 노동해야 했다. 상세한 것은 Katz의 1974년 저작을 보라.

르피리오 디아스시대 이후 자본제적 농업이 침투하자 몇몇 대농장 지주들은 이에 부응하여 전통적 자본주의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농장 지주들은 이와 반대로 전통적 인디안 촌락토지를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농장을 늘려갔다. 노동의 경우, 작물경작지는 추수기와 파종기에 주로 필요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노동력의 부족이 常例化되었고 따라서 인건비는 급등하였다. 즉 높은 임금을 피하는 동시에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농장지주들은 농장거주노동자들에게 매해마다 생계보존비(subsistence wage)를 지불하였다. 이런 농장거주노동자들은 소작노동자에 비하여 생계의 안전을 유지받는 이득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소작노동자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서 점증하는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Katz, 1974, 28-30; Goldfrank, 1976, 405-7). 당연한 귀결로서, 포르피리오 디아스시대 동안 대농장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실질임금은 급락하였다. 따라서 공동촌락의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불확실한 생계보장으로 위태로울 때, 농장거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유복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옥수수과 밀을 경작하는 中部 멕시코의 대토지농장에 다반사로 존재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탕수수 등 아열대성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에서는 상황이 판이하였다. 소작제는 농장경영에 있어 부차적 기능만을 해왔고 대신 대부분의 토지는(남부 멕시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농장주의 직접 경영하에 있었다. 따라서, 농장노동자의 구성은 소수의 농장거주노동자와 다수의 임시적노동자로 되어 있었다. 사탕수수재배에는 主食농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습기있는 토지가 필요하였다. 사탕수수재배가 증가하면서 비특용작물(즉 주식을 생산하는 농산물)의 재배지는 줄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주식을 생산하는 대농장과 환금작물을 생산하는 대농장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결국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성에 있는 것이다. 모델로스 지방은 이런 상이점을 분석하는 데 적격한 장소였다.

즉 1880년 이전에는, 모델로스의 농촌은 전통적 인디안촌락과 주식생산 위주의 전통적 대농장이 공생하는 풍경이 주를 이루었다. Womack이 잘 지적하듯 1880년 이전에 “토지집중현상은 주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곳의 사탕수수 농장도 여타 中部 멕시코의 대농장에 있어서와 같이 사업으로서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돋보였다.”(Womack, 1969, 43). 그러나 1880년 이후 철도가 건설되고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모델로스의 사정도 변하였다.¹²⁾ 대농장지주에게 유리한 법령의 제정에 힘입어, 근대화된 대농장은 탐욕스럽게 전통적

12) 1908년에 모델로스는 전국 총생산의 1/3을 생산했고, Hawaii와 Puerto Rico 다음 가는 세계적인 사탕수수 생산지였다. Ronald Waterbury, *op. cit.*, 1975, 144.

형태의 대농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전통적 촌락도 예외는 아니어서 집터만 남게 되거나 마을이 흔적조차 없어졌다(Womack, 1969, 37-53). 늘어난 사탕수수재배 농장은 더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그러나 노동력은 대부분 계절성 노동력이 고작이었고 늘어나기는 했어도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농작물 재배 관행보다는 사탕수수의 처리기술, 수송 및 조직에 있었다(Wolf, 1969, 27).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서서히 농민을 와해시키더니 나중에는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 버렸다.

北部: 포르피리오 디아스시대 이전에, 노동조건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수의 부족 등 여러 면에 있어 남부와 북부 멕시코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집권기간중, 북부와 남부는 발전형태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디아스기간중, 北部 특히 미국과의 접경지대는 큰 변화를 맞보았다. 미국 남서부의 발전과 철도노선의 발달은 北部 멕시코의 변화, 목축, 그리고 공업용 광물을 여타 지역과 연결시켜 놓았다. 남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는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남부와는 판이하게(Sonora 지방의 Yaqui 인디안을 제외하고는) 착취의 대상이 될 인디안 마을이 없었다. 농업노동자(특히 부채노동자)는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경을 건너 미국으로 도주할 수 있었고 광산 지역의 일손부족으로 농장대신 전업을 할 장소가 많았다(Katz, 1974, 32).

이러한 史的 背景은 결국 임금상승을 가져왔으며 대체적으로 북부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上向移動性(upward mobility)을 보장해 주었다. 北部에서 대여된 토지의 크기는 풍부한 토지와 노동력 부족을 반영하여 南部에 비교하여 매우 큰 것이었다. 당연한 귀결로, 소작농 중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보존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농업중산층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北部에서는 농민들이 강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광산에서 일하여 또한 농업의 소득도 올릴 수 있었다. 北部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노동은 과히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의 특성상 일년 중 3~4개월만 집중적 농업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北部 멕시코에서는 中部 및 南部와 달리 半農, 半工業的 노동계층이 대두되었다(Katz, 1974, 34). 통계조사에 따르면 北部 Chihuahua州의 노동자들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물론 이 노동자에는 광산 및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농업노동자도 속한다(Wasserman, 1980, 23).

그러나 北部노동자에 있어 상향이동성(upward mobility)에 못지 않게 하향이동성(downward mobility)의 위험도 상존했었다. 남부의 농업노동계층이 대지주에게는 일종의 경제적 투자로 간주되어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었지만(왜냐하면 노예는 당

시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므로) 북부의 자유노동자에게는 그러한 보호막이 없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수혜관계(paternalism)가 中部 및 南部에서는 흔한 현상이었으나 北部에서는 다소간 드물었다. 농장말고도 광산 및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 北部에서는 행동의 자유스런 환경이 매우 넓었던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기회는 또한 경제의 위기시 항상 이에 상응하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멕시코혁명 전야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다. 北部의 Chihuahua州의 경우 1907년 미국의 금융공황이 광물값을 폭락시켰고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악명높은 테라사스(Terrazas) 가문¹³⁾의 농민영토 잠식이 멕시코 혁명전 이러한 악재와 동시에 발생하였던 것이다(Wasserman, 1980, 35-7).

3) 농민의 혁명시 動員 経路

세 가지 형태의 농민소요가 멕시코 혁명당시 어우러져 혁명의 불길이 당겨졌다. 北部의 경우, *ranchero*라고 불리우는 중소 상업적 농업자들이 세금, 여신 및 판매망을 통제하던 “독점자”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또한 北部 노동자의 경우(상당히 다양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 광산노동자, 목장의 노동자, 밀수업자 등) 그들의 보스와 투쟁하였다. 中部의 경우(모렐로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촌락민들은 근대화된 플랜테이션과 흡사한 형태의 농장주들이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를 잠식하는 데 대항하여 싸웠다. 이러한 농민소요형태를 반영이나 하듯 北西部의 Obregón장군 휘하의 군대는 주로 중소 상업농들로 충원되었고 北部 Pancho Villa의 군대는 불규칙한 하층계급으로, 그리고 中部 Zapata의 군대는 전통적 촌락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적 대농장에서 일하던 노동계층은 혁명시 봉기하지 않고 구질서의 상징으로만 남아있었다.

南部: 1910~1917년의 혁명기간 대부분중 남부지역의 농민은 잠잠했다. 유카탄반도의 경우, 이질적이며 혹독하게 핍박을 받아왔던 플랜테이션농장의 노동자들이 혁명에 거의 참가치 않았다. 오히려 혁명군 중 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던 立憲軍派가 이지역을 1915년 인수하고 북부 및 中部의 하층민으로 구성된 혁명군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에네켄농장에서 금융지원을 얻어내기까지 하였다. 가장 착취와 억압에 억눌렸던 지역에서 대중적 참여가 드물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13) Terrazas 가문은 Porfirio 시대에 북부 멕시코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Caudillo의 하나였다. 그들은 Chihuahua 지방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이해와 결합했다. 자세한 것은 Mark Wasserman, “The Social Origins of the 1910 Revolution in Chihuahu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XV, 1, 1980, 15-37. 을 보라.

유카탄반도의 경우 이곳에는 中部 모렐로스 지역을 특징지었던 전통적 공동촌락도, 유동성도 찾아보기 힘들었다(Tannenbaum, 1937, 162; Womack, 1969, 231-2; Goldfrank, 1979, 155; 1976, 401-2). 혁명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난 1915년에 가서야 뒤늦게 “위로부터” 찾아온 혁명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Alvarado 장군이 이끄는 보수적 혁명군은 유카탄반도에서 토지자본가의 독점세력을 몰아내기는 했으나 대농장지주가 농민에 대하여 행사해 왔던 사회적 통제를 이완시키는 데는 별로 한 일이 없었다(Joseph, 1980, 44).

오아하카(Oaxaca)의 경우도 유카탄반도와 유사하였다. 中部 모렐로스에서는 Zapata의 농민군이 변화를 위하여 싸우다 죽어가는 동안 Oaxaca지방의 농민은 현상유지를 위한 전투에 참여하거나 수동적으로 남아있었다(Waterbury, 1976, 411). 상업주의적 생산양식 대신에 역사적으로 농민적 생산양식(peasants mode of production)이 지배적이었던 Oaxaca에서는 20세기 들어서도 농업구조에 큰 변화가 도래하지 않았다. La Canada와 Tuxtepec 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대적 농업기업형태로서의 자본주의는 이 지역을 넘보지도 못했다. 농민들은 계속하여 기존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을 해왔고 이러한 생산에는 물론 농민촌락과 그들의 문화도 포함되었다(Waterbury, 1975, 438-9).

中部 : 중부 고원지대에서의 농민봉기는 그 중요성에 있어 익히 알려져 왔다. 上記한 바와 같이, 대농장에 의한 촌락 공동소유지 잠식은 다수의 인디안노동자들을 점점 더 궁핍과 가난속으로 몰아넣었다. 새로이 보강된 대농장지주들은 농장내 거주 노동력을(그리고 농장에 속한 소작농들을) 마을내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충원한바, 그 주된 이유는 대농장 지주에게 충실한 일꾼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장내 거주 노동자들이 혁명기간중 혁명군에 참여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장내 거주노동자나 일시적 노동자군은 자본을 축적할 여력이 없었고 계속하여 악화일로의 생활여건속에 놓여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디안촌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혁명전야기간중 급격한 생활의 궁핍과 불안정에 직면해 있을 때, 농장내 거주 노동계층은 점증하는 사회적 불안정하에서도 적어도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만은 구가할 수 있었다(Katz, 1974, 30).

혁명기간중, 멕시코혁명의 가장 중요한 농민봉기라고 누구나 지칭하는 Zapata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John Womack과 기타 여러 학자에 의해 그 기원, 구조, 목표 및 성취도에 있어 잘 연구되어져 있다.¹⁴⁾ 익히 알려진대로 Zapata의 군대는 인근

14) John Womack, Jr., *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 (New York, Random

대농장으로부터 착취당해온 공동체적 부락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농장지주의 착취는 中部 멕시코 全域에 걸쳐 횡행하기는 했지만 Zapata의 본거지인 모렐로스에서 특히 심각하였다. 물론 Morelos말고도 Puebla라던가 Tlaxacala 등에서도 농민군이 많이 모집되었다. 특히 Tlaxacala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항성이 강했고 비록 완전치는 못해도 제한된 정치적 자율성을 누려왔고 1890년대 이후로는 점증하는 조세와 중앙정부의 간여로 큰 불만을 느껴왔던 中農과 농민계층職人들이 혁명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Buve, 1975, 112-52).

혁명기간중 動員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기는 해도 제사회세력간에 있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째로, 팽창주의적 대농장은 자유스런 촌락체와 끊임없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즉 공동체 부락민들은 Tannenbaum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自己防衛”(self-defense)를 위해 사회혁명에 참여하는 고전적 패턴을 따랐다(Tannenbaum, 1937, 193-7). 둘째로, “中農”이 중심이 되었다. 中農들은 이미 정치경제적 밀반찬과 그들 자신의 궁핍한 상태에 대해 날카로운 인식을 하고 있었다. 머지 않아 이들 中農들은 또다른 사회층도 혁명에 참여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즉 토지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농에게만 그치지 않고 여타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Morelos의 경우 공동촌락민들은 사탕수수 농장으로부터 혁명군을 모집해나가기도 했다. 셋째로, 성공적인 농민혁명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촌락(free village)의 존재가 전락상 필수적이었다. 대농장제가 압도적이었던 지역에서는 농촌봉기가 국지화되어 소멸되거나 지하로 묻혀버렸다. 오직 Wolf가 이야기한 “전술적 기동성”(tactical mobility)이 존재했던 지역에서만 농촌봉기는 더욱 드세었다.

北部 : 北部 멕시코의 경우, 혁명군 충원에 있어 두 지역이 특출하였다. 첫번째 지역은 북서부 지역의 Sonora州였다. 이곳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땅을 빼앗기고 Yucatán 반도의 에네켄농장으로 압송되어 갔던 Yaqui 인디안이 다시 한번 혁명의 선봉에 섰다. 혁명초기 이들의 지도자는 부족장들이었지만 얼마가지 않아 농민과는 거리가 먼 다소 보수적인 “후원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Yaqui 인디안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세력은 자유주의적 토착지주 출신이었던 Madero를 추종하는 Maderista黨과 부유한 대농장지주 José María Maytirenarena였다(Katz, 1976, 67).

그러나 Sonora와 여타 북부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 있어 주된 혁명군의 동원은 中

House, 1969), Jesus Sotelo Inclan, *Raíz y Razón de Zapata* (Mexico, 1943), Laura Helguera R. et al., *Los Campesinos de la Tierra de Zapata, I: Adaptación, Cambio y Rebelión* (Mexico, 1974)

小 상업적 농업민들로부터였다. 이 집단은 차별적 조세제도, 외국인 소유의 철도 운임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점, 그리고 미국인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토지거래제 등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Wolf, 1969, 38-9). 결과적으로 Sonora州 혁명군은 중산 계층의 농업민들로 구성되어졌던바 1914년 이후에는 다소 중도보수적이었던 立憲主義派軍과 협력하여 대중적 지지에 기반을 두었던 Pancho Villa와 Zapata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1930년대까지 “Sonora 王朝”라고 불리웠던 일련의 멕시코 대통령을 통제하던 힘을 발휘하기까지 하였다(Goldfrank, 1979, 156; Cline, 1965, 192-203).

北部에 있어 두번째 혁명의 초점은 Chihuahua州에 맞추어져야 한다.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를 무너뜨린 가장 효과적인 혁명운동의 기운은 Chihuahua州의 소규모 자영목축업자(ranchero)로부터 싹텄다. 前述한 바와 같이 군사적 식민지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인디안들과 싸워왔다. 그러나 아파치족이 패퇴하자 Terrazas가문과 같은 부유한 대농지주들이 이들 ranchero의 땅을 잠식해 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땅은 Chihuahua를 가로지르는 멕시코 중앙철도변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地價가 폭등하였고 따라서 대농장지주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땅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 식민개척자들이 멕시코혁명에 있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 ranchero들은 Chihuahua州 도시 및 지방의 여타 집단과 연합세력을 구축해 나갔고 혁명의 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사적 식민개척자들과 합세한 첫번째 지방민들은 물론 그럭저럭 자기소유의 땅을 보유하고 있던 소규모 자영목축업자층이었다. 두번째 부문은 半농업노동자층이었는데 이들 집단은 미국남서부의 경기위축으로 산악지대인 Guerrero 지역에 그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北部에 있어 혁명은 농민이 주도했다기보다는 (Pancho Villa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지방의 전통적 엘리트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를 들자면 Chihuahua의 혁명운동을 지도했던 Abraham González는 Guerrero의 전통적 정치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 혁명군의 또다른 지도자인 Pascual Orozco 같은 이도 이 지역 명문가 출신이었다(Katz, 1976, 70-1). 이러한 일반적 맥락에서 특출난 예외적 인물은 물론 Pancho Villa다. Zapata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는 원래 Durango 지방의 소작인으로부터 출발하여 후일 유명한 義賊이 된 인물¹⁵⁾이다(Wolf, 1969, 35).

15) 자세한 것은, Martín Luis Guzmán, *Memorias de Pancho Villa* (Mexico, 1968), Federico Servantes, *Francisco Villa y la Revolución* (Mexico, 1960).

Ⅲ. 결론 : 멕시코革命에 있어 理論과 史的 事實의 조응관계

사회과학자들은 理論과 實際(theory & fact)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 가정을 자주한다. 사회과학자들에 있어, 이론의 효용성은 사회과정을 조사하는 도구로서 간주된다. 기존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사실(fact)들이 유려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이론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기본적으로 멕시코혁명은 농민혁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親革命學派(pro-revolutionary school)에 의하면(Turner, Tannenbaum와 다수의 멕시코 연구가가 여기에 속함),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출현한 근대적 부르주아의 멕시코 국가는 멕시코혁명의 적법한 후계자로 인정되었다. 즉 혁명은 근대화 및 산업적 진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역사는 멕시코국가와 관료제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층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수레바퀴였다. Baily가 지적하듯 “親革命學派의 견해는 멕시코를 지배하는 정치적 엘리트의 프로파간다와 잘 조화되었다”(1978, 69)¹⁶⁾.

두말할 필요없이, 이러한 해석은 Tannenbaum으로 하여금 Zapata와 그를 따르던 집단을 멕시코 농민혁명의 가장 대표적 인물로 부상시켜 놓았다. 親革命學派는 革命이 1910년이래 현재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어온 것으로 확신한다. 한 국가로서 멕시코는 (비록 때로는 폭력적이고 단절적이기는 하지만) 독재와 봉건적 잔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사회정의 및 경제적 평등을 향하여 통합된 모습으로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이에 더불어 1950년대에 이르러 멕시코는 근대 남미혁명의 모델로 간주되어 몇몇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멕시코혁명이 남미의 “선택된 혁명(preferred revolution)”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Raat, 1982, 000). 이는 곧 얼마 안 있어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의 전반기에 이르러(특히 1968년 Tlatelolco 대학살 사건 이후)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허망한 약속들에 질은 향수를 느끼며 멕시코혁명은 결코 농민과 도시노동자의 승리가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Womack이 단적으로 지적하듯, 멕시코혁명의 주된 업무는 “민주주의”라는 인가된 허가증 밑에서 행하는 “사업”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1970, 677). Populism의으로 멕시코 혁명을 해석하는 데 반기를 든 수정주의적 논의에는 그 밑에 항상 농민과 혁명과의 합

16) 전통주의적 설명과 수정주의적 설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David C. Baily, “Revisionism and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78), 62-79와 W. Dirk Raat, *The Mexican Revolution: An annotated guide to recent scholarship* (Boston, 1982) 특히 서론 부분을 보라.

수관계라는 거대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는 농민의 혁명시 동원 양태를 몇몇 대립적 이론들과 연계시켜 검증해 보는 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신조류를 분석적 차원에서 우리는 두가지 질문으로 엮어낼 수 있다. 첫번째 질문은 “왜” 농민은 봉기를 일으키는가? 라는 질문이다. 농민봉기는 도덕경제학자의 말처럼 자기방위를(self-defense) 위한 반응의 형태로 볼 수 있을까? 또는 Popkin류의 주장처럼 농민의 봉기는 투자논리에 근거한 적극적 행위였는가? 이미 논의한 바대로 Porfirio Díaz의 집권기간중 농민의 수탈정도와 이에 상응하는 농민의 봉기정도는 별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Katz, 1974). 절대적이며 또한 상대적인 면에서도 극심한 착취를 당했던 Yucatán 반도의 에네켄농장 노동자들은 거의 소요에 참여치 않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도덕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¹⁷⁾ 그러나 Zapata를 중심한 Morelos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의 농민봉기는 Scott의 도덕경제학적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곳에서의 농민봉기는 자본제적 상업농의 잠식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자기방어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또한 대농장내 거주농민은(혁명전에 비하면 물론 이들의 생활여건은 악화되었지만 혁명기간중 상대적으로 촌락거주 인디안보다는 생계보장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Scott의 말대로 봉기에 참여치 않았다. 오히려 대농장지주에게 매우 충성스러웠다. 이러한 양태는 Oaxaca에서도 보여진다. Katz와 Waterbury가 주장하듯 적어도 Oaxaca와 Morelos의 농장내 거주노동자는 혁명기간중 점증하는 불안정속에서도 부족하나마 안정적 생활을 구가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의 형태는 도덕경제학적 입장의 후원-수혜자(patron-client) 모델이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北部 멕시코의 경우는 어떤가? 논의된 바대로, Porfirio Díaz 집권기간중 北部의 노동자들은 남부 및 중부의 경우와 달리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생활수준의 악화를 경험치 않았다. 북부농민의 일부분은(예를 들면, 임금에 계속상승된 목동들의 경우)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을 경험했고, 또 다른 일부는(예를 들면 소작인들이나 임시고용직 등) 비록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는 남부 및 북부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Popkin이 베트남의 경우에서 주장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베트남에 있어 농민봉기는 反봉건적이며, 전통적 촌락

17) Katz와 Goldfrank는 Yucatán 지방에서 혁명참여가 적은 것을 에네켄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의 이질적 구성과 같은 몇가지 요인과 Yucatán 반도가 멕시코의 중심에서 격리되었다는 지정학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Yucatán에서의 마야인디안의 경우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공동체의 再生보다는 시장경제를 순화시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었다. 즉 농민봉기가 극심했던 남부베트남의 경우 생계에 곤란을 느낄 정도로 사태가 급박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농민들은 혁명성공시 취득 가능한 이득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한 소량의 잉여자산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北部 멕시코와도 흡사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농민의 활동을 증대내지 조직해 왔던 정치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즉 농민혁명의 정치적 의미는 혁명기간 중 농민의 동원양태를 무시하고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누가” 봉기에 참가하였나? 라는 질문과 직결된 것이다.

우리의 논의대로, Wolf가 주장하듯 가난하지만 자유로운(poor but free) 中農이 봉기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즉 이들은 전술적 이동성(tactical mobility)을 지닌 집단이었다. 즉 땅없는 Morelos의 농민과 오랜 동안 자율적 촌락조직을 유지해 왔던 Sonora의 Yaqui 인디안,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리적 군사적 이점을 지녔던 북부의 목동이나 중소지영목축업자(ranchero)가 Porfirio Díaz의 독재에 항거하며 봉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Wolf의 구조주의적 해석에도 설명력이 부족한 점이 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오로지 계급분석에만 치중한 구조주의적 분석은 멕시코 혁명기간중 동원적 측면에서 볼 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물론 구조주의적 분석이 농민혁명의 중심주제(특히 농민의 동원양태)에 대하여 매우 유용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시해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멕시코 혁명은 지극히 대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대다수가 Porfirio Díaz에 대항하여 동시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Zapata의 지도하에 있던 Morelo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적 동원은 Sonora州의 경우에서 보듯 “위로부터의 충원”에 근거했거나 또는 Pancho Villa의 경우에서 보듯 대중적 성격의 동원이 군사적 목적이나 전시경제의 요구와 맞물려 일어난 것이 차라리 주된 형태였다.¹⁸⁾ (Tobler, 1980, 253-4). 이런 점에서 볼 때 계급분석에 치중한 농민군 동원의 모델은 사회-문화적이거나 社會-정치적 요소들을 과감히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나, 중국, 소련 등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충원”에 의존한 멕시코혁명의 독특한 측면은 왜 농업인구의 절반가량을 점하고 있던 대농장내 거주농민이 혁명기간중 수동적으로 남아있었는가를 대담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Tobler, 1980, 246).

18) 북부멕시코의 전시경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Friedrich Katz, “Pancho Villa, peasants movement and agrarian reform in northern Mexico,” in D.A. Brading (ed.), *Caudillo and Peasants in the Mexican Revolu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0) 59-75를 보라.

결론적으로 말하여, 멕시코혁명에 있어 노동조건과 그에 따르는 혁명적 동원양태는 쉽사리 인과적 연계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왜” 농민이 봉기하는가? 라는 문제와 “누가”(즉 어떤 부류의 농민이) 혁명적 봉기에 참여하는가? 라는 兩 질문을 연관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 형태의 계급적 관계와 정치적 구조가 매개 변수적으로 삽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 결정인자(Porfirio Díaz의 집권기간 중 진행된 정치적 중앙집권화 구조와 자본제적 농업의 확산이 멕시코농민에게 끼친 영향)와 특수한 결정인자(지리적 위치에 따른 상이한 노동조건, 농민의 조직정도, 농촌 엘리트의 농민 동원능력 등)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특정현상(즉 농민의 혁명적 동원)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만 우리가 제시한 두가지 질문의 해답이 얻어질 것이다. 이 논문의 첫머리에서 제시된 세가지 모델은 이러한 결론하에서 재평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Rodney D., “Mexica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4 (Feb., 1974), 94-113.
- Bailey, David C., “Revisionism and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Mexican Revolution”, *HAHR* (1978), 62-79.
- Bates, Robert H., “People in Village: Micro-level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1978, 129-149.
- Buve, Raymond, “Peasant Movements, Caudillo and Land-Reform during the Revolution in Tlaxacala, Mexico”, *Boletí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vol. 18, 1975, 112-152.
- Cline, Howard 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N.Y., Atheneum, 1965.
- Coatsworth, John H., *Growth against Development: The Economic Impact of Railroads in Porfirian Mexico*,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 Press, 1981.
- Cockcroft, James D., *Intellectual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Austin UT Press, 1968.
- Colburn, Forest D., “Current Studies of Peasants and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of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World Politics*, vol. 34, (April, 1982), 437-449.
- Cumberland, Charles C., “The Sonoran Chinese and the Mexican Revolution”,

- HAHR (May, 1960), 397-410.
- Goldfrank, Walter L., "Inequality and Revolution in Rural Mexico", *Social and Economic Studies*, vol. 25, (Dec., 1976), 397-410.
- _____, "Theories of Revolution and Revolution without Theory: The case of Mexico", *Theory and Society*, vol. 7, 1979, 135-165.
- Hart, John M., "Agrarian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Ideology", *The Americas*, xxxix (Oct., 1972), 131-150.
- Jacobs, Ian, "Rancheros Revolt", *The Mexican Revolution in Guerrero*, Austin, UT Press, 1982.
- Joseph, Gilbert M., "The Fragil Revolution: Cacique Politics and Revolutionary Politics in Yucatan", *LARR*, vol. 15, no. 1, 1980, 39-64.
- Katz, Friedrich, "Labor Conditions on Haciendas in Porfirian Mexico: Some Trends and Tendancies", *HAHR* (Feb., 1974), 1-47.
- _____, "Peasants in the Mexican Revolution of 1910", in J. Spielberg, J. Whiteford and S. Whiteford (eds.), *Forging a Nation: A Comparative View of Rural Ferment and Revolt*, 1976, 61-85.
- _____, "Pancho Villa, Peasants Movements and Agrarian Reform in northern Mexico", in D.A. Brading (ed.), *Caudillo and Peasants in the Mexican Revolution*, Cambridge Univ. Press, 1980, 59-75.
- Knight, Allan, "Peasants and Caudillo in Revolutionary Mexico 1910~1917", in D.A. Brading (ed.), *Caudillo and Peasants in the Mexican Revolution*, Cambridge Univ. Press, 1980, 17-59.
- Migdal, Joel, *Peasants, Politics, and Revolution: Pressures Toward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 Press, 1974.
- Moor,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66.
- Popkin, Samuel, *The Rational Peasants: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 Raat, W. Dirk, *The Mexican Revolution: An annotated guide to recent scholarship*, Boston, G.K. Hall Co., 1982.
- Scott, James,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s: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6.

Tannenbaum, Frank,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New York, 1929.

———, *Peace by Revolution: An Interpretation of Mexico*, N.Y., Columbia Univ. Press, 1937.

Tobler, Hans Werner, "Conclusion: Peasants Mobilization and the Revolution", in D.A. Brading (ed.), *Caudillo and Peasants in the Mexican Revolution*, N.Y., Cambridge Univ. Press, 1980, 245-255.

Turner, John Kenneth, *Barbarous Mexico*, Austin, UT Press, 1969.

Wasserman, Mark, "The Social Origins of the 1910 Revolution in Chihuahua", *LARR*, vol. xv, no. 1, 1980, 15-37.

Waterbury, Ronald, "Non-Revolutionary Peasants Oaxaca Compared to Morelos in the Mexican Revolu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7 (Oct., 1975), 410-442.

Wilkie, James W., *The Mexican Revolution: Federal Expenditure and Social Change since 1910*, Berkel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Wolf, Eric, *Peasants Wars of the Twentieth Century*, N.Y., Harper and Row Pub., 1968.

Womack, Jr., John, *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 N.Y., Random House, 1969.

———, "The Spoils of Mexican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48 (Jul., 1970), 677-687.

Contending Theories of Peasant Rebellion: The Case of Mexico

Kang, Myung-G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estify the validity of three models of peasant rebellion (each of which is represented by the work of Eric Wolf, James Scott, and Samuel Popkin, respectively) against the backdrop of Mexican Revolution. By extension, the role of the peasantry during the Mexican Revolution is to be discussed.

I. Theoretical Aspects of Peasant Rebellion

To explain the many agrarian revolutions that have swept across the globe, social scientists have proposed a number of theories of peasant behavior. While varying in emphasis and in detail, most of these explanatory efforts focus on the impact of state building and capitalism in undermining age-old subsistence guarantees. Although somewhat arbitrary, these explanatory efforts can be divided into three lines of prominent theoretical traditions.

Structural Analysis: The first powerful line of analysis (represented by the works of Eric Wolf as well as Barrington Moore Jr., and Jefferey Paige) is a structural one in which rural uprisings are analyzed primarily as a function of class coalition and conflicts. Wolf begins his analysis with the impact of commercial agriculture on peasant social life. This development, in the case of Brita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ransformed the agrarian society into a modern industrial one through a "bourgeoisie democratic revolution". Wolf and Moore agreed that the chances of underdeveloped country taking this route to modernity today are remote. Wolf focuses attention on a third route: peasant revolution, which has been the most prominent method of social overhaul in colonial and semi-colonial countries in this century. The main victims of this transformation of preindustrial into colonial raw material producing societies were the peasantry. The integrity and equilibrium of rural communities were shattered by the intrusion of market relationships. So,

according to Wolf, the very spread of the capitalist market principle also forced men to seek defenses against it. As a consequence, it is precisely when the peasants can no longer rely on his accustomed institutional context to reduce his or her risks, but when alternative institutions are either too chaotic or too restrictive to guarantee a viable commitment to new ways, that the psychologic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tensions all mount toward peasant rebellion and involvement in revolution. Wolf also argues that, disposing Leninist mythology surrounding the revolutionary role of the landless and poor peasantry, it is the middle and poor but 'free' peasants which constitute the pivotal groupings for peasant uprisings and enjoy tactical mobility of their revolutionary potential.

Moral Economy Analysis: Contrary to the structural interpretation, James Scott focuses on the question of peasant motivation, the subjective processes believed to be responsible for peasant revolt. Starting from a picture of peasant life as chronically impoverished and dangerously insecure, Scott posits the 'subsistence ethic' as the cornerstone of peasant morality. The subsistence ethic is a rational principle which assigns priority to the assurance of minimum livelihood. Peasants, according to Scott, strive not to maximize profit, but to reduce the risk of falling below a bare survival income. As a consequence, peasants judge the fairness of taxes and rents by the degree to which such extractions permit the maintenance of a subsistence level. Accordingly, peasant rebellion, if we follow Scott's argument, comes not when rising expectations are unexpectedly frustrated, but when the abyss of famine yawns. Vulnerability to sharp fluctuations in real income, a sudden increase in taxes or in rents that affected many peasants, and a lack of other economic opportunities often arouse a moral outrage among peasants, who feel that their subsistence and reciprocity ethics have been violated.

Rational Choice Analysis: Popkin emphasizes a self-interested, rational action of the peasants rather than one wedd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of village life. He argues that peasants involvement in commercial agriculture is generally not a last-grip alternative to declining income or threatening situation, but responses to new opportunities. He maintains that peasant

liberation movements are anti-feudal, directed at reshaping traditional practice as well as taming capitalism through improvements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terms of exchange for both labor and commodities. Although Popkin does not believe that commercial agriculture and/or governments are more benevolent than is assumed by the moral economy approach, he argue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market and government penetration can improve the welfare of low-income peasants, at least individually, if not collectively. Whether or not peasants engage in collective actions (rebellions) revolves around individual cost-benefit analysis based on what he calls 'investment logic'. As a consequence, for Popkin, rebellions are positive efforts to get something better after the individual peasant has concluded from cost-benefit calculation about the expected returns on his own inputs.

II. Factual Aspects of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The Mexican Revolution is generally held to be agrarian, for the majority of its participants were peasants, and it resulted in some of the most advanced agrarian legislation in Latin America.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analysis, however, two points deserve emphasis. First, the rural rebellion in Mexico was not a nationwide conflagration, a general rising against landlords or feudal forms of surplus extraction. Except for a few localities, true land reform did not occur as in revolutionary France or Russia until the government enacted or reinforced it. A second distinctive feature of the Mexican Revolution was the heterogeneity of the rural rebels and absence of overarching political movements and goals. Because of the cultural and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absence of mediating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 the rural workers failed to make a coherent bid for political power. As a result, no single party or ideology, like the Communist Party in China, came along to do it with and for them.

1) General Background of Porfirio Díaz Period

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social change in Mexico was determined most by the coincidence of world economic growth and the victory of Mexican liberalism. It is a commonplace that Díaz's Mexico, like much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 experienced a rapid phase of dynamic, export-led growth based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egration into the world market. In short, the expansion of raw material production was the key to modernization.

Immediately bound up with the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was the battle for political centralization and stability. It was a battle against century-long tradition of centrifugal forces in Mexican society. By 1910, although the process of centralization was far from complete, as a general rule, the Porfirian writ ran further and more surely than any since the days of the Viceroy. A nation-wide system of patronage underwrote the political machine which concentrated the power at the top, in the hands of the dictator. The results of political centralization were new increased taxation, conscription, and rigorous enforcement of "public order".

2) Peasant labor conditions during the Porfirio Díaz era.

Agrarian conditions during the Porfirian era varied widely. In the north changes were parallel to those in the US southwest, with an expansion of ranching, speculating, and commercially viable homesteading. In the densely populated center, some estates modernized their techniques and social relations, while most simply increased their exploitation of land and labor within the old forms. In the south, plantation agriculture found enclaves for specialized tropical crops.

South: The labor condition in the southern part of Mexico (Yucatán, Chiapas, Oaxaca, and Veracruz) created a virtual situation of slavery. Plantation owners reinforced the system of debt peonage or servitude. They also contracted the importation of laborers from other states or foreigners including Chinese and Koreans. Especially the labor conditions on the henequen plantation became infamous throughout the whole Mexico. And even for the free laborers, the artisans, and the small tradesmen, the henequen boom pushed traditional corn and livestock raising to more remote areas of Yucatán, to such a point that basic foodstuffs had for the first time to be imported.

Central Mexico: Contrary to the case of the southern Mexico, central Mexico produced food crops for domestic market in large traditional haciendas

while some portions of modern hacienda produced tropical foodstuffs such as sugar cane, and the population was dense and the massive exploitation of indian village produced a large class of landless peasants. In traditional haciendas, hacendados induced or forced residence on the estate and paid annual subsistence wage. These resident peons (called *acasillados*) enjoyed the advantage of security compared to tenants or sharecroppers. In modernized haciendas which produced tropical goods for export, the labor force consisted of mostly temporary workers with a minority of resident peons. As a consequence, for a small group of resident hacienda laborers labor conditions slowly deteriorated but they also enjoyed security while the remaining peasants (sharecroppers and temporary workers) had to experience a change from gradual erosion to precipitous disaster.

North: Due to the absence of indian village and the development of railroad link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southwest, labor force in the north was in short supply. All this meant rising wage levels. As a consequence, labor force in the north possessed a far greater degree of upward mobility. This situation gave at least some tenants a possibility of earning more than a mere subsistence, and of evolving into a kind of agricultural middle class. For any northern laborers, however, upward mobility was as frequently matched by downward mobility. While the indebted laborers of the south were protected (albeit, in a limited way), there was no such protection for the free laborers in the north.

3) Some tendencies in the revolutionary mobilization of the peasant

Three distinct forms of rural discontent converged to fuel the Mexican Revolution.

North: In the north, first, small to medium scale commercial farmers fought monopolists who controlled the taxation, credit and marketing. They rallied against discriminatory taxation, high freight rates on the foreign controlled railway,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American firms and individuals in land deals. As a consequence, in the state of Sonora, rebels were led by elements of middle strata who allied themselves with the moderate Constitutionalists after 1914 to defeat the more plebeian armies of Villa and Zapata.

They also parlayed their military success into control of the Mexican presidency until the nineteen thirties, a succession referred to as the "Sonoran Dynasty". The second focus of revolt in the north was the state of Chihuahua. Here, small rancheros (descendants of military colonists), semi-agricultural laborers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ary mobilization. Also, as in the case of Sonora, in Chihuahua revolution was not led by the peasants themselves (with the exception of Pancho Villa), but by the district's traditional elites such as Abraham González and Pascual Orozco.

Center: The importance of agrarian revolt on the central plateau of Mexico has been more generally recognized. Especially, in the small state of Morelos, Zapata led the revolutionary peasant army. Zapatista revolt was essentially a revolt of communal villagers whose lands had been expropriated by neighboring haciendas.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case of Zapatismo. First, peasants in Morelos followed the classical pattern of peasant revolution: the villagers made the social revolution in self-defense. Second, the middle peasants took the lead. They had readily available political base, a keen appreciation of their predicament. Finally, the survival of the free village was a strategic necessity for a successful agrarian movement. In other words, they could enjoy what Wolf termed "tactical mobility".

But totally contrary to the case of village free peasants, *acasillados* (resident peons) in large hacienda refused to jo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The great mass of *acasillados* and temporary laborers had no way to accumulate the capital (as in the case of northern Mexico) and faced constantly deteriorating living conditions. Nevertheless, they could enjoy, at least, security at a time of mounting insecurity.

South: In most cases, during the revolutionary period, the southern peasant kept silent despite the worst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Yucatán, the heterogeneous, brutally exploited plantation workers took no part in the revolutionary events, while the Constitutionalist army took over the state in 1915 and used henequen revenues to help finance the struggle against the rural revolutions from Morelos and the North. The case of Oaxaca was similar to that of Yucatán. While the peasants of Morelos fought and died for

change, the Oaxaca peasant, for the most part, remained passive and joined the fight to defend the status quo.

III. Conclusion: Theories and Facts in Mexican Revolution

By relating the labor conditions in rural Mexico with three models of peasant rebellions, we can ask the question of "*why peasant revolted?*". As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exploitation during the Porfiriato and the level of subsequent revolutionary activity. Mayan laborers in Yucatán plantation (who suffered most) barely stirred. In this regard, moral economist interpretation can not be justified. But in case of Morelos, Zapatismo can be best interpreted by the moral economist's argument. In Morelos, landless poor but free peasants fought for self-defense against the intrusion of commercial agriculture. Also, most resident peons (acasillados), as Scott predicted, remained silent satisfied by the existence of security of their livelihood. This was also the case for the peasantry in the state of Oaxaca. These phenomena can be well explained by referring to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in the moral-economy paradigm. But the picture in the north changed somewhat dramatically. Peasantry in the north enjoyed upward mobility (albeit, in a insecure state) and the subsistence crisis were less pressing and peasants had even small surplus to invest. In short, the northern case can be better interpreted within the framework of Popkin's rational choice model.

By relating the mobilizational aspects in rural Mexico with the three models, we can ask the question of "*who revolted?*". As Wolf argued, it is clear that middle and poor but free peasants who enjoyed tactical mobility were the ones who successfully revolted. Landless Morelos peasants and Yaqui indians of Sonora, and northern cowboys and small to medium rancheros point to this fact. But at this juncture, we must raise the serious question of whether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classes adequately explain the peasant mobilization. There is no doubt that structural analysis offers us a fruitful starting point for the analysis of central problems of revolution, especially as regards the distinction between various types of mass mobilization. But if

we think that the revolution, for all its mass character, was not a spontaneous uprising of broad sectors of population, but was either based on recruitment practices from the above as in the case of Sonora. So, it is clear that class analysis should be supplemented by a close examination of socio-cultural and socio-political factors. This distinctive feature of mobilization from the above in the Mexican case(contrary to those of France, China, and Russia) provides a key to understanding the fact that the half of the Mexican farming population which was firmly integrated in the hacienda remained passive for the most part in the revolutionary wars and during the years prior to the Cardenas era.